

메시지 2

노아, 다니엘, 욥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룬 본들

성경: 겔 14:14, 20, 창 6:8, 마 24:37-39, 단 2:34-35, 욥 42:5-6

I. “지혜있는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비교 1-6 장.

- A. 지방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별이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민 24:17, 계 22:16, 비교 마 2:2)의 복사판 인 빛나는 별이 되어야 한다. 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어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이들이다(계 1:20).
- B. 빛나는 별들인 이기는 이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 곧 하나님의 전달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보내신, 살아 있고 신선한 메시지가신 현재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다—계 1:20-2:1, 말 3:1.
- C. 이기는 별이 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다.
1. “또한 우리에게는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벧후 1:19.
 - a.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신언의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 이것은 (1)이 시대가 어두운 밤(롬 13:12)이자 어두운 곳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둠속에서 움직이며 행하고 있다는것(비교 요일 5:19)을 가리킨다. 또한 (2) 성경에 있는 신언자가 말한 말씀이 믿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로서 (다만 정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문자로 된 지식이 아닌) 영적인 빛을 전달하여 그들의 어둠을 비추며, 그들을 밝은 낮에 들어가도록 인도할 뿐 아니라, 어두운 밤을 지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인도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b. 날이 밝기 전, 곧 주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샛별은 믿는 이들, 즉 빛을 비추는 성경의 신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비춤을 받고 밝아진 사람들의 마음속에 떠오른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곳을 등불처럼 비추는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샛별로서 실지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우리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변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계 2:28, 22:16, 딤후 4:8.
 2.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계 3:1.
 - a. 일곱 영은 일곱 별과 하나이고, 일곱 별은 일곱 영과 하나이다.
 - b. 하나님의 일곱 영은 교회가 생생히 살아 있도록 하며, 일곱 별은 교회가 강렬하게 빛나도록 한다.
 - c.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죽은 문자로 된 지식으로 대치될 수 없다(고후 3:6).

d. 일곱 별들은 교회들의 전달자들이다. 그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증거를 짊어질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별들과 같이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녀야 하며, 또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계 1:20.

D.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르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삼상 3:9-10; 4:3 각주 1; 9:9; 눅 1:36-38, 53.

II. 노아, 다니엘, 욥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노선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가를 계시하는 본들이다. 이는 시대의 이상을 따라 살고 일함으로 시대를 바꾸는 것이다—겔 14:14, 20, 창 2:9, 계 2:7, 22:1-2, 마 24:37-39, 45-51, 단 2:34-35, 행 26:19, 딤후 4:8.

III. 노아, 다니엘, 욥의 삶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선민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을 계시한다.

A. 노아에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되, 그분의 건축을 위한 갈망과 계획에 있어서와, 그분의 언약인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는 영원한 신실하심에 있어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본다—창 9:12-17, 고전 1:9, 요일 1:9, 계 4:3, 21:19-20.

B.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인자로서 다시 오심을 본다—단 7:13-14, 10:4-9.

C. 욥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인 것을 수행하는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얻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신격에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과 본성과 외양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그 영 하나님을 본다—욥 10:13, 42:5-6, 엡 3:9, 고후 3:18.

IV.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창 6:8:

A. 노아의 삶과 일은 은혜가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가를 계시한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을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신 놀라운 그리스도이다—창 6:1-14, 마 24:37-39, 고후 12:7-9:

1. 육체는 마귀의 현존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가 사탄의 현존에 직면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창 6:3, 8, 롬 7:17-21, 히 4:16, 고전 15:10.

2. 은혜의 결과는 의로움이다. 은혜의 능력, 은혜의 힘, 은혜의 생명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서로서로에 대하여,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의로울 수 있다—롬 5:17, 21, 벰후 2:5.

B.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방주를 건축함으로 영원한 경륜을 수행했다—창 6:8-22, 히 11:7, 벰전 3:20-21, 마 16:18:

1.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건축물은, 하나님과 사람의 건축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노아의 방주이다. 하나님의 건축물은 하나님-사람이다—요 1:14, 2:19, 고전 3:9, 16-17, 계 21:2, 22, 엡 2:22, 시 27:4.

2. 방주의 건축은 건축 재료인 그리스도의 풍성들의 요소를 지닌 단체적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축을 예표한다—마 16:18, 고전 3:9-12 상, 엡 3:8-10, 4:12.
3. 방주의 세 층은 우리의 체험에 따른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아래층에 의해 상징된 그 영은 우리를 아들에게로 이끌고(벧전 1:2, 요 16:8, 13-15), 아들은 우리를 체험에 있어서 더 높이 아버지께로(요 14:6, 엡 2:18, 요일 1:5, 4:8) 이끈다.
4. 방주의 세 번째 층에는 하늘을 향해 난 창이 오직 하나뿐인데, 이는 하나님의 건축인 교회 안에는 하나의 신약 사역을 통한 오직 하나의 계시와 하나의 이상이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창 6:16, 행 26:19, 잠 29:18 상, 딤후 1:3-4, 고후 3:6-9, 4:1.

V.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단 1:8:

- A. 하나님께 사용되어 시대를 전환시킨 모든 이들은 오늘날의 나실인들로서, 그들의 헌신의 광채 속에서 자신들을 주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이들이다—민 6:1-8, 시 110:3, 참조 사 7:13-18.
- B. 다니엘은 시대를 전환시킨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1. 다니엘은 사탄을 따른 시대에서 분별되어 있었다—단 1:8, 4:26, 5:23, 빌 3:13-14, 계 2:13.
 2.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갈망과 연결되어 있었다—단 9:2-4, 딤후 3:14-17, 1:13-15, 참조 느 8:8, 13, 신 17:18-20.
 3. 다니엘은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했다—단 6:10, 9:17, 10:1-21.
 4. 다니엘은 순교의 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다—1:8, 6:10.

VI. “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욥 38:1 상), “이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42:1 상),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10 상).

- A.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라는 그들의 생각 안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욥의 고난은 욥이 하나님을 더 얻도록 하나님께서 욥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소멸하심이었다—욥 9:15, 11:12, 13:4, 빌 3:12-13:
 1.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자신의 완전함과 정직함 가운데 있는 타고난 욥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과 속성들 안에서 새로워진 욥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욥 1:1, 딤후 3:5.
 2.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추구하는 데로 욥을 이끌어 욥으로 하여금 그의 인간생명 안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는 것이었다—골 2:19.
 3. 하나님의 의도는 욥을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창 2:9, 딤후 6:11, 딤후 3:17, 엡 3:14-21.
- B. 욥기는 육십육권으로 된 성경이 오직 한 가지를 위한 것임을 계시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모든 것이 되시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욥 10:13, 엡 3:9, 빌 3:8-9, 엡 1:22-23, 2:15, 계 21:2.

C. 이러한 원칙 안에서 살고 일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그 영에 의해, 그 영과 함께, 그 영 안에서, 그 영을 통해 존재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갈 5:25, 롬 8:4, 빌 3:3, 계 2:7, 22:17 상.